

스포츠 경기 상황 전하는 '스포츠 아나운서', 뉴스 진행은 물론 필드를 발로 뛰며 생생한 경기 현장을 청자들에게 전하는 노윤주(체육학 2012) 동문을 만나봤다.



인문사회 분야 치중된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양 과목의 다양성을 짚어봤다.

2023년 5월 26일 금요일

대학주보



춘계 대동제
상황리에 진행

2023 춘계 대동제가 막을 올렸다. 캠퍼스 곳곳은 학생들이 운영하는 체험 부스와 플라마켓 부스, 셀프 촬영한 사진을 네 컷으로 즉석 인화해주는 경희네컷 부스, 푸드트럭 등으로 꾸며졌다.(관련기사 12면) 이자수 기자 ssu1404@khu.ac.kr

봄 대동제 대신한 '중랑의 밤'

서나은 기자 merlo@khu.ac.kr

중앙동아리연합회(중동연)과 응원단 컬스라가 함께 진행하는 공연 행사 '중랑의 밤'이 지난 23일 국제캠퍼스(국제캠) 사색의 광장 주차장에서 열렸다.

공연은 19시부터 ▲컬스라 ▲탈무드 ▲깨뮤 ▲바람개비 ▲BMB ▲래빈의 순으로 이어졌으며 참여 학생을 위한 준비밥기 이벤트는 탈무드 팀의 공연 이후 진행됐다. 무대 이후에는 무대 뒤측 스크린을 통해 21시 40분경부터 영화 '라라랜드'의 상영이 이뤄졌다. 이번 행사에서는 푸드트럭을 비롯해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의 야간 부스가 함께 운영됐다. 학생들이 돛자리존에서 무대를 관람할 수 있도록 돛자리 대여도 18시 30분부터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 주류 판매는 따로 진행되지 않아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구비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랑의 밤' 행사에 참여한 이정인(식품생명공학 2020) 씨는 "축제가 취소돼 아쉬운 마음이었는데 그래도 중랑의 밤에서 축제 분위기를 내서 좋았고 컬스라부터 다른 동아리들도 무대 공연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재밌게 즐기고 왔다"며 행사를 즐긴 소감을 밝혔다.

'중랑의 밤'은 국제캠 총학생회가 22일부터 예정돼 있던 춘계 대동제를 취소함에 따라 중동연과 응원단 컬스라가 기획한 행사로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가 선보여졌다.

한편, 중국어학과는 춘계 대동제 기간이었던 5월 24일, 과 차원에서 일일호프를 진행했다. 일일호프는 24일 18시부터 새벽 2시까지 칠성포차 수원영동점에서 운영됐다. 현장에서는 ▲병뚜껑 아트 대회 ▲홍보 포스터 이벤트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 ▲경매 이벤트 ▲이슬라이브 등 다양한 이벤트들이 진행됐다.

국제캠 축제 취소, 총학생회장 탄핵 절차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최예령 기자 herry2020@khu.ac.kr

22일부터 3일간 예정돼 있던 국제캠(국제캠) 봄 축제가 전면 취소됐다. 국제캠 총학생회(총학) 문정식 학생회장(중국어학 2018)의 탄핵안 역시 가결된 상태로 이를 논의할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가 26일 소집된다.

국제캠 축제와 관련된 논란은 이달 초에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국제캠 총학이 축제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것에 있다.

축제와 교내행사는 대행업체와 함께 진행되며 대행업체의 주요 역할은 무대설치, 연예인 섭외 등이다. 대행업체 선정은 총학이 아닌 대학의 공개입찰을 통해 진행된다. 하지만 국제캠 총학은 학생주관의 행사를 이유로 입찰을 반대했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는 대행업체가 제출한 견적서 공유를 요청했고, 총학은 한 곳

의 대행업체를 제외한 견적서를 공유했다.

이를 인지한 중운위는 이후 제외된 한 대행업체의 견적서 공유를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여러 이유를 들어 공유를 미루던 총학생회는 결국 나머지 한 곳의 견적서를 공유했다. 하지만 해당 대행업체의 견적서에는 세부항목들에 대한 작성이 돼있지 않았으며 최종 금액만이 명시돼 있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대행업체 직원 중 제 51대, 53대 국제캠 총학생회장과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가 있다는 점에 있다. 해당 대행업체의 제안서에는 직원의 안전교육과 관련된 수료증이 있는데, 수료증에 전 총학생회장과 동일한 성명이 명시돼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대행업체는 과거 축제 및 교내 행사를 맡은 이력이 있던 터라 의혹은 더욱 가중됐다.

문 총학생회장은 이와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특히 전 총학생회장과

관련해 "수료증에 전 총학생회장과 동일한 이름이 적혀있는 부분이 있는데, 해당 기간에 전 총학생회장은 군 복무를 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했다"는 해명을 남겼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중운위 긴급회의가 15일, 16일, 18일 총 세 차례 진행됐다. 긴급회의에서는 ▲문정식 총학생회장 사퇴안 ▲문정식 총학생회장 탄핵안 ▲22일~24일 국제캠 축제 개최 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15일 진행된 중운위 회의에서 문 총학생회장은 회장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학생회칙 제 64조(사퇴)에 따라 문 회장의 사퇴 안건 심의를 진행한 결과, 찬성 3분의 2를 넘지 못해 문 회장의 자진 사퇴는 불발됐다. 중운위원 중 일부가 해당 안건을 자진 사퇴가 아닌 탄핵을 당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16일 긴급회의에서 문 회장의 탄핵안이 발의됐다. 해당

발의안은 ▲찬성 10표(중동연, 응대, 외대, 생대, 소용대, 체대, 국제대, 공대, 예대, 전정대), ▲반대 1표(부총학생회장) ▲기권 0표로 가결됐으며 동시에 문 회장의 직무도 정지됐다.

국제캠 봄 축제 진행 여부의 경우, 지난 16일과 18일 긴급회의 결과에 따라 취소됐으며 단대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봄 축제도 전면 취소됐다. 학생지원센터는 입찰공고를 철회했다.

23일에는 문 학생회장의 탄핵안을 두고 확운위의 소집이 공고됐다. 확운위는 26일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중운위는 빠른 시일 내에 투표일을 확정해 총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총학생회칙 제 70조에 따라 학생총회에서 위임된 학생총투표에서 전체 회원 2/3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인원 2/3 이상이 찬성할 시, 탄핵안은 의결된다.

한편, 서울캠퍼스(서울캠) 축제 기간 동안, 서울캠행 셔틀버스가 추가로 운행된다.